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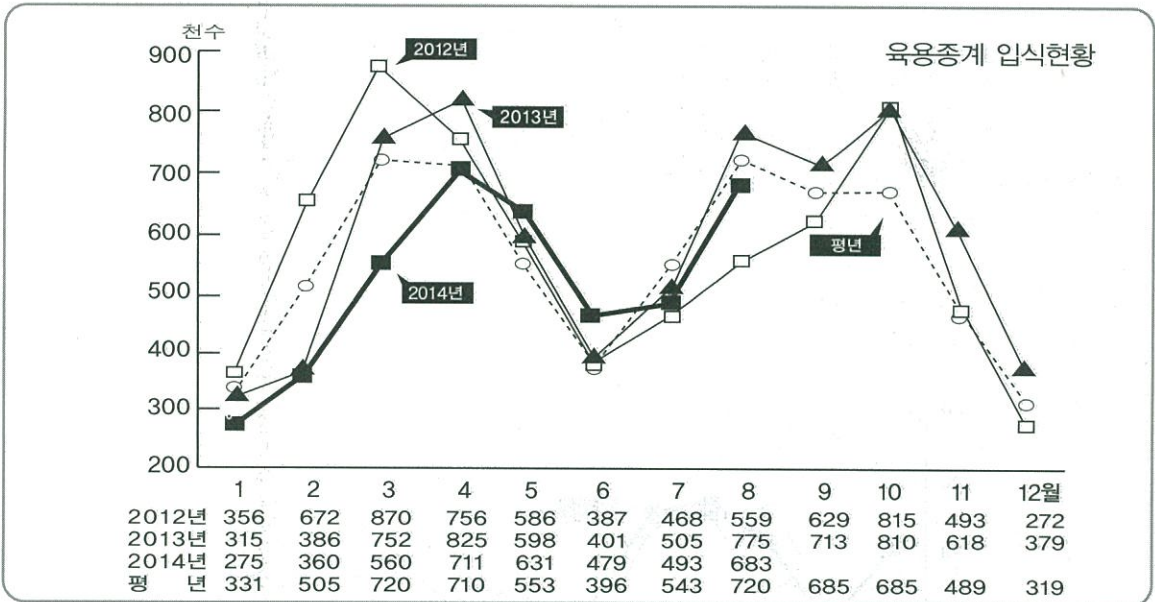


10월 닭고기 수급 전망

1. 육용종계 입식현황

■ 2014년 8월 육용종계 입식마릿수 전년대비 11.8% 감소

- 2014년 8월 육용종계 입식마릿수는 68만2천9백수로 전년(77만4천7백수)대비 11.8% 감소했으며, 이는 평년수준(72만수)대비 5.2% 감소한 수준이다(7월 49만3천4백수 대비 38.4% 증가).
- 육용종계 입식마릿수는 2014년 8월까지 4백19만3천수로 전년대비 7.9% 감소했으나 5월부터는 회원사 및 비회원사, 유사인티, 개인종계장들의 종계확보 및 병아리 입식 열기로 전년수준의 높은 분양이 예상되고 병아리 가격 강세로 종계의 환우 및 생산연장으로 사육마릿수가 전년대비 증가하여 2014년 12월까지의 병아리 생산잠재력이 전년대비해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종계 사육마릿수는 전년대비 3.0% 증가한 7백42만수로 추정되고 있는데 2013년 2분기 이후 종계입식 증가와 도계장의 신규진입 및 공급능력 확대로 인해 병아리 확보에 나서면서 종계 노계의 도태가 지연되고 종계 환우 및 생산연장 등으로 인해 종계 사육마릿수가 전년대비 늘어나고 성계의 사육마릿수 역시 전년대비 23.5% 증가하여 산란계군의 비율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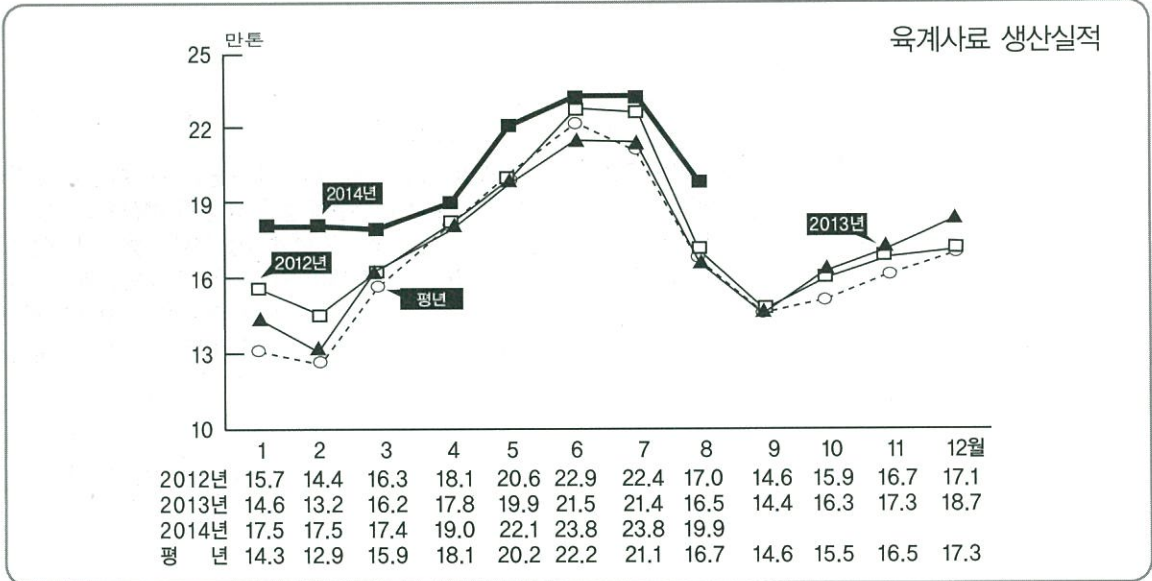
※주 : 평년은 2009~2013년의 입식수수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주자료 : 대한양계협회

2. 배합사료 생산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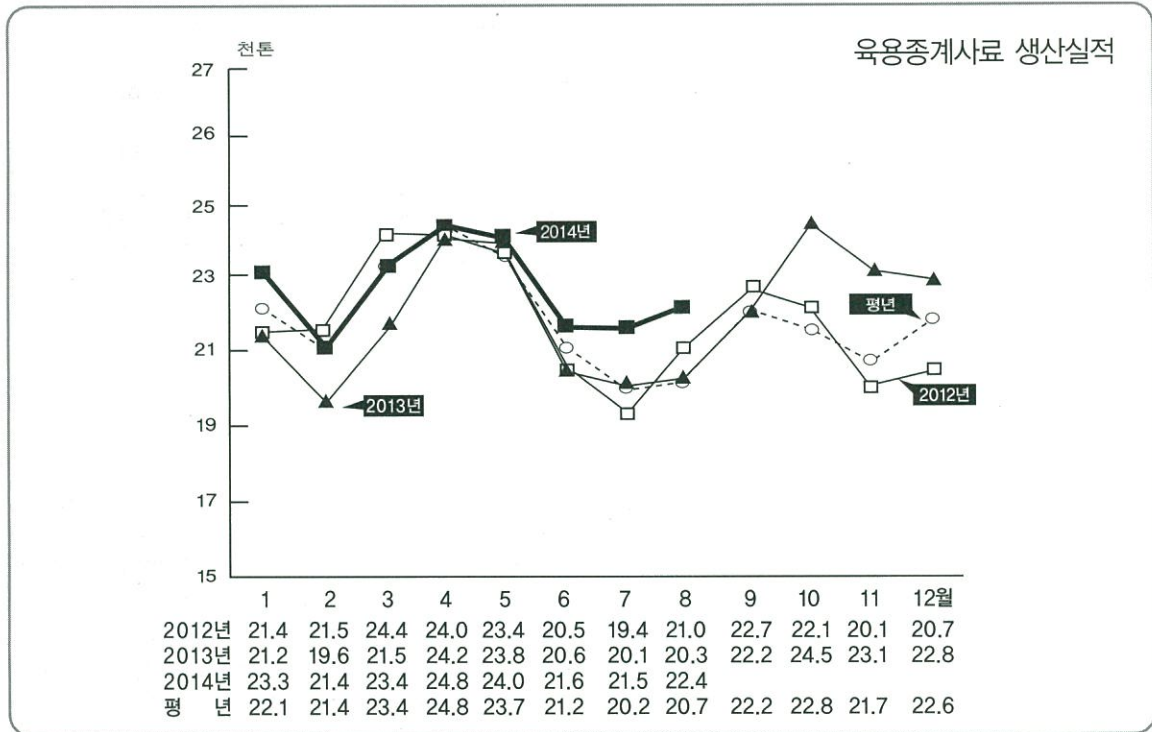
■ 10월 사육마릿수 전년보다 증가 전망

- 10월 닭고기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8월 육용종계사료 생산량은 22,449톤으로 전년(20,346톤) 대비 10.3% 증가했으며, 전월(21,450톤) 대비해서는 4.7% 증가했다. 2013년 2분기 이후 증가된 종계 입식마릿수와 종계의 환우 및 생산연장으로 공급량을 늘려 사료섭취량이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육용종계사료 생산량은 증가했으며 2013년 2분기 이후 종계 입식증가로 종계 사육마릿수는 큰 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8월 육계 배합사료 생산량은 199,295톤으로 전년(164,899톤) 대비 20.9% 증가했으며, 전월(238,156톤) 대비해서도 16.3% 감소했다. 9월에는 병아리 생산과 발생률이 전년대비 증가했으며 날씨가 선선해지고 증체가 빨라져 육계 생산성이 좋아지면서 육계 사육마릿수가 전년대비 13.8%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전월대비 사료생산량은 약간 감소했다. 또한 도계장의 신규진입 및 공급 능력 확충으로 육계 사육마릿수는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 : 평년은 2009~2013년의 생산량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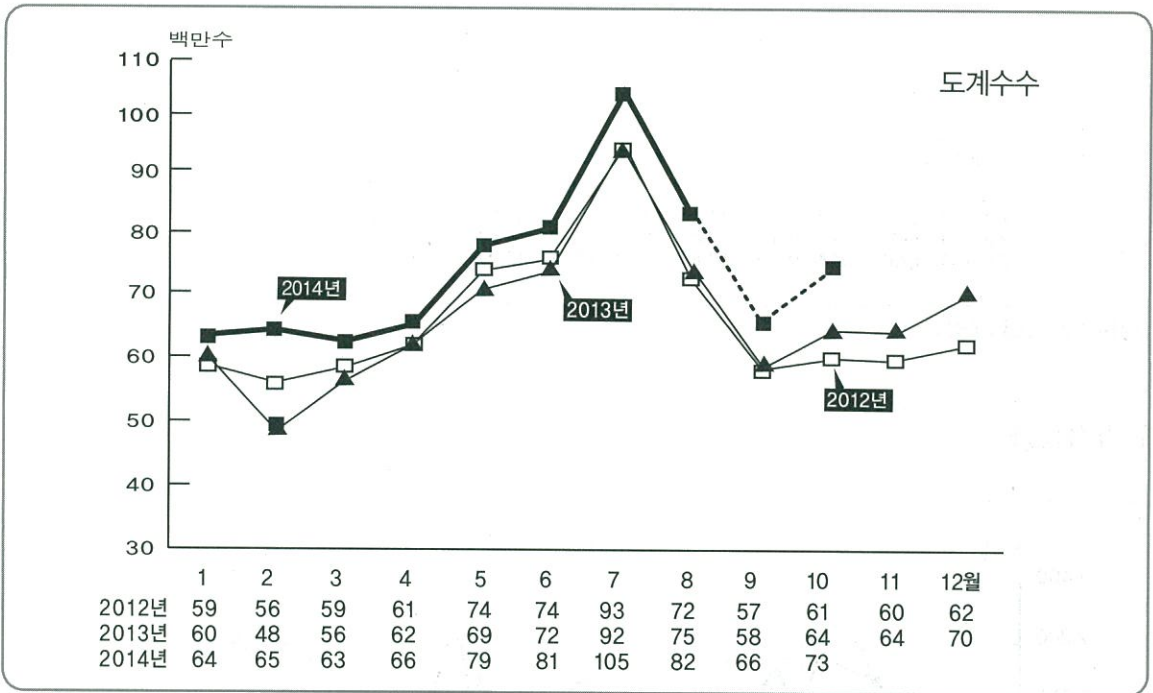
※주 : 평년은 2009~2013년의 생산량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3. 도계수수

■ 10월 도계마릿수 전년보다 13.8% 증가할 전망

- 지난 8월의 도계마릿수는 81,747천수로 전년(75,362천수)대비 8.5% 증가했으며, 전월(105,496천수)대비 22.5% 감소했다.
- 10월의 날씨는 기온이 맑고 건조한 날이 많았으며, 일교차가 클 것으로 보인다. 병아리 생산 증가와 육계 사육 마릿수 증가가 예상되고 10월 상순에는 개천절 연휴와 한글날 연휴, 단풍놀이가 겹쳐 일부 닭고기 수요가 있을 전망이다, 중·하순에는 특별한 수요증가요인이 없어서 냉동비축의 증가, 수입 닭고기 감소로 인해 도계마릿수는 전년보다 17.1% 증가한 9,303만수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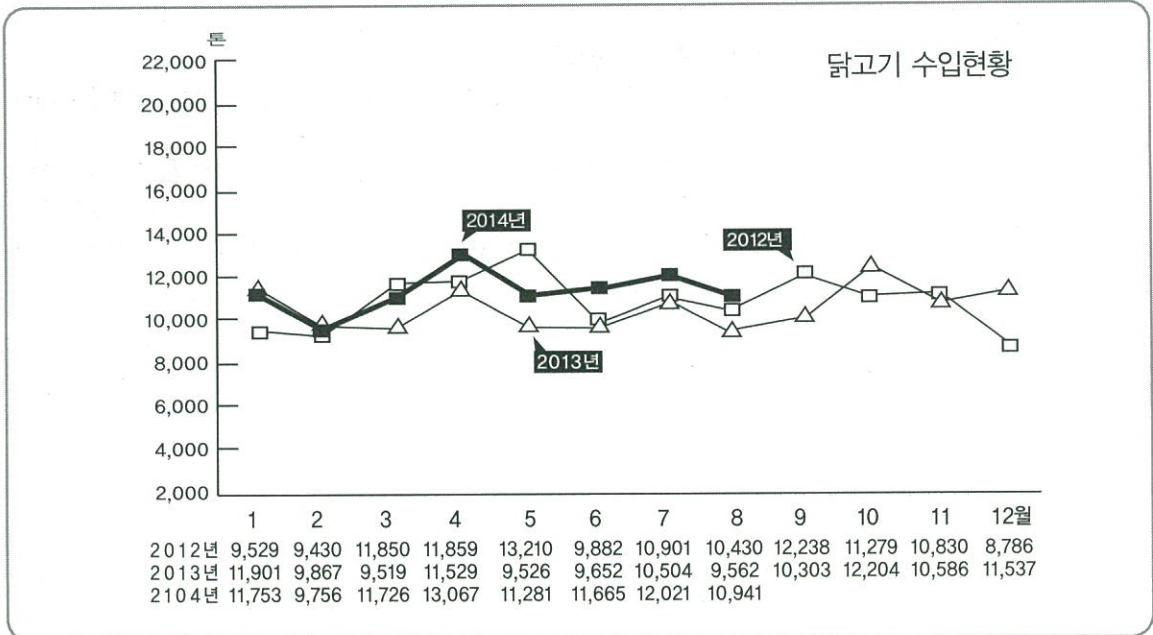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4년 9월~10월은 농경연 추정 및 전망치)

4. 닭고기 수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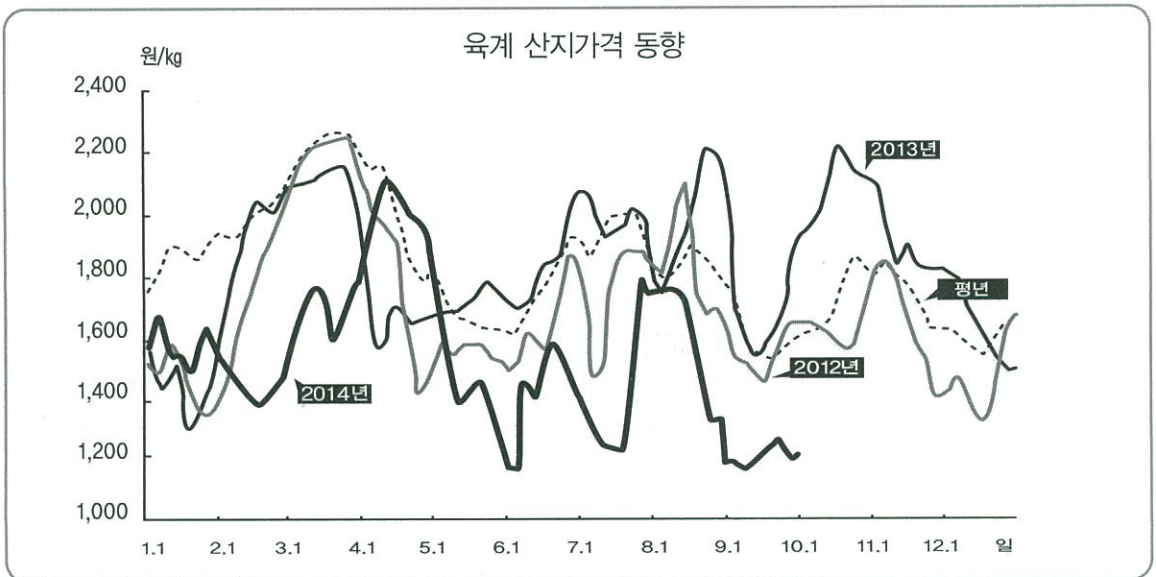
■ 10월 닭고기 수입량 전년대비 감소 예상

- 지난 8월에는 10,941톤이 수입되어 전년(9,562톤) 대비 14.4% 증가했으며, 전월(12,021톤) 대비해서는 9.0% 감소했다. 검역기준 8월 수입량은 8,101톤으로 전년(8,084톤) 대비 0.2% 증가했으며, 전월(12,586톤) 대비해서는 35.6% 감소했다.
- '14년 3월초 브라질 닭고기 수출가공공장의 화재 및 1분기 미국 돼지 열병으로 인한 닭고기 대체 수요 증가와 국제가격이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많이 들어왔던 수입물량이 소비가 되지 않고 창고 재고로 보유하고 있어 수입업체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해 닭고기 업체 감소 및 물량을 줄일 것으로 보여 10월은 전년보다 수입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 농수산물무역정보

5. 가격동향



※주 : 평년은 2009~2013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 농협, 축산물 가격정보(5일 이동평균가격)

■ 10월 육계 산지가격 평균 1,100~1,300원 전망

- 9월 상순에 추석이 있어서 제수용품에 대한 일시 수요가 증가하고 중순에 열리는 인천아시안게임의 국가대표선전 여부에 따라 소비가 일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특수를 누리지 못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질병이 없어지고 사육성적이 개선되고 있으며 병아리 생산 및 육계 사육마릿수 증가에 의한 도계 마릿수가 증가했고 도계장 공급 능력 확대와 신규진입, 기존 계열주체들의 닭고기 공급량 증가로 이어져 도계육에 대한 할인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통물량에 대한 구매 저조로 인해 산지가격은 약세를 보여 9월 평균 육계 산지가격은 1,221원을 나타냈다(전년 9월 1,684원 보다 27.5% 하락, 평년가격 1,607원 보다는 24.1% 하락, 전월 1,523원보다 19.8% 하락).
- 10월의 날씨는 1주차에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으며, 일교차가 큰 날이 많겠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며,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고, 2주차에는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올 때가 있겠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며,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고, 3주차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가 많겠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며,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거나 비슷하겠고, 4주차에는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고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전망이다. 병아리 및 육계 사육마릿수 증가가 예상되고 냉동비축 물량 증가와 수입 닭고기 감소로 인해 닭고기 공급량이 전년대비 큰 폭 증가하고 맑고 건조한 날과 일교차가 큰 날이 많을 것으로 예보되어 닭고기 수요 증가에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어서 시세는 전년보다 하락한 1,100~1,300원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전년 10월 가격은 2,097원, 평년가격은 1,699원).

6. 수급자료

〈육계 및 삼계 입식·비축현황〉

(단위 : 천수)

기간	육계						삼계					
	입식			비축			입식			비축		
	2013년	2014년	전년대비	2013년	2014년	전년대비	2013년	2014년	전년대비	2013년	2014년	전년대비
08.25~08.31	8,276	9,848	119.0%	3,732	7,938	212.7%	1,393	1,395	100.1%	386	1,802	466.9%
09.01~09.07	8,368	9,352	111.8%	3,596	8,131	226.1%	1,393	1,375	98.7%	373	1,959	525.2%
09.08~09.14	8,272	10,025	121.2%	3,572	8,235	230.5%	1,349	1,413	104.7%	406	1,968	484.2%
09.15~09.21	8,378	9,814	117.1%	3,531	8,238	233.3%	1,342	1,396	104.0%	486	1,957	402.3%
09.22~09.28	8,675	9,716	112.0%	3,397	8,443	248.5%	1,299	1,368	105.3%	493	1,903	385.7%

7. 결론

- 10월에는 개천절과 한글날 연휴, 단풍놀이 향락객 수요로 인해 일부 영향을 받을 전망이며 병아리 및 육계 사육마릿수 증가와 냉동비축물량 증가, 수입닭고기 감소로 닭고기 공급량은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 전망되지만 기온이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으며, 일교차가 클 것으로 예보되어 닭고기 수요 증가에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어서 시세는 전년보다 큰 폭 하락한 1,100원~1,300원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
- 시세변동요인

구분	생산(공급) 측면	소비(수요) 측면
인상요인	-	
하락요인	- 병아리 생산량 및 육계 사육마릿수 증가	-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위축